

연쇄방화의 예

송재철 <화재원인조사 전문가>

1990년 1월 22일 새벽 2시 30분에서 3시 30분사이.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80번지와 부근 6개 가옥의 나무대문에 원인모를 화재가 일어났다. 그후 거의 달포동안 시내 200여 군데에서 같은 양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2월7일까지는 주로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 심야에 서울시내 12개 영세민 밀집 거주지역 15평 안팎의 한옥집 나무대문 73개소에서만 일어났다.

방화로 인한 이같은 화재는 대문을 조금 그을리거나 약간 타버리는 정도로 그치는게 대부분으로, 피해정도가 소소하기 때문에 경찰이나 소방서에 신고되지 않았다. 또한 신고된 것들이라 해도 각 사건간의 연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도가 못되었다. 그러다가 2월초 매스컴을 통해 이 사건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자 같은 방화피해를 당한 많은 주민들이 신고를 해 연쇄적인 방화사건임을 알게됐다.

그러자 2월 8일부터는 나무대문 집에 대한 방화가 끊어지고 발생지역이 광범위해지면서 동시 다발적으로 다세대주택, 담장이 낮은 소형단독주택 등 불특정대상건물의 현관이나 거실창문등에서 방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회혼란을 조성하고자 하는 범죄양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연쇄방화사건에 대한 매스컴의 보도로 충동적 방화형태가 알려져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에

의해 주택의 편지함이나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의 카바, 오토바이, 프로판가스의 호스, 비닐덮개, 쌓아놓은 점포앞 종이상자, 상가통로의 잡동사니, 초인종과 그 플라 스틱덮개, 아파트승강기 내부 조작판, 벗집단같은 곳 등 다분히 장난끼 어린 방화가 일어났다. 물론 가정불화나 염세주의자, 절도나 강도후 증거인멸을 위해서 일어난 방화사건도 있었다.

다행히 전국민이 감시한 결과 범인이 꼬리를 감춘 것이 사실이나 언제 다시 재연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남아있다.

또 다른 유형으로 4월 30일 새벽 중랑구와 노원구 일대의 교회에 열 차례나 불을 낸 범인이 잡힌 사건이 있었다. 검거된 범인은 절도전과가 두차례나 있는 21세난 정신 박약자로서 기도를 한다면서 교회안으로 들어간 다음 불을 지르면 소방차가 출동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재미있어 계속 방화했다고 진술했다.

방화범의 검거에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노력이 가해지겠지만 이 경우에서와 같이 방화범을 잡고보면 그 동기가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모든 화재사건이 그렇지만 방화는 특히 증거확보를 위한 현장검증이 어렵고 뚜렷한 용의자 없이 불특정 다수인중 범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검거가 어렵다.

방화사건들은 대형화재를 원치 않는 듯 조기진화로 불을 쉽게 끌 수 있을 정도로 소량의 인화물이 쓰인다. 따라서 치밀한 현장검증을 하지 않더라도 화재가 방화인지 아닌지는 쉽게 판별할 수 있다.

지난 2년간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34건 내지 35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중 원인불명의 방화사건은 3건이나 차지하고 있다.

방화에 대한 골머리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 등 외국 여러나라에서도 앓고 있다.

1976년 11월 16일 화요일 새벽 2시 45분부터 10분간 동경 신주꾸번화가에 있는 2개의 빌딩과 길가의 쓰레기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화요일의 방화'는 시작되었다. 2주후 11월 30일 역시 화요일. 새벽에 신주꾸번화가 4곳의 빌딩에서 불이 일어났다. 다시 77년 1월4일 새벽에는 4개 빌딩 14개소에서 동시에 화재가 났다.

이같은 연쇄 화재사건으로 긴장된 모든 시민과 경찰은 철야로 순찰을 실시했고 돌아오는 화요일인 1월 11일에는 기필코 범인을 잡아 야겠다고 모두들 대기하고 있었으나 화재는 한주일을 건너 18일 오전 7시 50분경 두군데서 일어났다. 그중 한 사건은 소방서장이 살고있는 아파트 현관입구에 있는 서장의 우의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발생한 것인데 화재가 난 시간은 순찰차들이 철야순찰을 끝내고 홀



가분한 마음으로 귀가한 직후였다.

이 '화요일의 방화'는 전후 31회에 걸쳐 일어났으나 아직까지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 화요일의 방화는

첫째, 매주 화요일 신주꾸에 있는 빌딩중 한 건물에 다방이나 술집 등 여러 업종이 입주해 출입이 용이한 복합건물만을 선택했고

둘째, 빌딩을 몽땅 태워버리는 큰 불이 되지는 않기를 바란듯 쓰레기통이나 빌딩내 점포의 문짝,

간판같은 것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한편,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고층아파트에 불을 질러 많은 세입자를 나가게 하고 아파트주인은 보험금을 타게 되는 계획적인 방화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 문제가 되고있다.

방화는 불황일 때 많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방화범죄중에는 방화를 전문으로 하는 방화청부업이라는 일종의 지하비지니스가 성업중이라는데 큰 문제가 있다. 이경우

빈민가의 집주인들은 집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를 마찰없이 쫓아낼 수 있고 보험회사로 부터는 보험금까지 타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 집주인은 집세가 안 걸려도, 수도나 전기, 난방비를 모두 자기가 물어야 할 형편이므로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세입자를 마음대로 내보낼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방화가 집주인으로서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방화범의 검거율이 2%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저조해 방화비지니스가 위험부담이 적은 지하사업으로 범죄자들에게 평가받는다고 한다. 뉴욕시는 이같은 범죄의 예방을 위해 방화수사반을 계속 증원하고 있으나 계획방화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동기를 알수 없는 방화중에 이같은 고지능의 방화범죄가 생기지 않으리라고는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천태만상의 동기와 연쇄 방화처럼 전문적으로도 해명하기 어려운 복잡하고도 야릇한 이상심리 상태에서 행해지는 방화들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그 해답이 찾아져야 할 것이다. 동기가 모호한 방화는 방화자가 재범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